

상해·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제주관광의 대응전략

정 승 훈*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상해·여수 세계박람회 개요
- III. 상해·여수 세계박람회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 IV. 상해·여수 세계박람회와 제주관광의 연계전략
- V. 맺으며

I. 들어가며

경제·문화 분야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박람회(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 가운데 하나이다.

세계박람회는 1851년 런던에서 처음 열린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모두 105차례 열려 에펠탑, 전화기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4회 개최), 중국(2010년 박람회 유치)이 박람회를 개최했거나 유치해 놓고 있다.

중국은 2010년 상해 세계엑스포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첨단기술이 접목된 개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 및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대외개방 가속화와 함께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첨단기술산업이 접목된 ‘Mega Event’ 개최전략은 관련 산업의 개방화 및 글로벌화, 기술수준 제고 등을 통한 ‘중국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편 세계박람회기구(BIE)는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팔레 드 콩그레'에서 제142차 총회를 개최, 여수를 2012년 세계엑스포 유치 도시로 선정했다. 1893년 시카고 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우리나라는 '93년 대전 박람회에 이어 207년 11월 두번째로 유치에 성공하게 되었다.

여수박람회에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관람객 290만명)과 2002년 월드컵(350만명)에 비해 2~3배 가량 많은 795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내 경제를 한 단계 높일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수 세계박람회를 통해 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결하는 관광권이 개발되면서 한국에도 본격적인 해양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상해·여수 세계박람회와 제주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상해·여수 박람회 개최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상해·여수 세계박람회와 제주관광의 연계전략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상해·여수 세계박람회 개요

1. 박람회(엑스포) 개요

가. 박람회(엑스포)의 개념

EXPO란 EXPOsition의 앞부분에서 따온 말로 상품을 사고 팔거나, 문화와 정보를 교환하는 장에서 비롯되었으며, 전시회나 설명회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이충기, 2007 : 3~4).

박람회를 프랑스에서는 Exposition, 영국에서는 Exhibition, 미국에서는 World Fair 라고 부르기 때문에 엑스포와 박람회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

박람회 또는 엑스포는 초기에는 종교와 관련된 축제에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시, 판매, 유희, 교육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박람회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산업, 경제, 학술, 과학기술,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재, 생산물, 천연물, 견본 등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사로 정의할 수 있다.

박람회는 인류가 이룩한 문명의 성과를 일정한 주제에 맞춰 한 자리에서 비교, 전시하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 문화 분야의 종합행사이다.

1993대전박람회나 2005아이치박람회, 2010상해박람회와 같은 비상업적인 엑스포에서는 엑스포를 통한 대중교육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나. 박람회(엑스포)의 유형

박람회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이충기, 2007 : 4).

첫째, 국제공인여부에 따른 분류로 박람회국제사무국(BIE)에서 승인을 얻었는지의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BIE는 국제전시의 횟수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1928년 파리에서 설립되었으며, 비상업적이며 3주 이상의 개최기간을 갖는 국가에서 조직하는 국제전시행사만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BIE는 1934년 시카고 박람회를 시작으로 모든 세계박람회에 대해 엄격한 심사와 공인을 하고 있다. BIE의 공인을 받는 박람회는 등록박람회와 인정박람회로 구분된다. 등록박람회는 5년마다 한번씩, 주제와 면적에 제한없이 6주에서 6개월까지 열고 있다. 2000년 독일 하노버 박람회와 2005년 일본 아이치박람회, 2010년 중국 상해박람회가 등록박람회이다. 인정박람회는 등록박람회 사이에 1회, 명확한 주제와 25ha 미만의 면적에 3주에서 3개월까지 개최가 가능하다. 1993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전박람회와 이번에 유치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인정박람회이다. 일반 박람회는 도자기엑스포(세계도자비엔날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강원국제관광엑스포 등이다.

둘째, 연속성 여부에 따라 1회성 박람회와 연속형 박람회로 구분할 수 있다. 대전엑스포와 같은 BIE 박람회는 대부분 1회성이며, 연속형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도자기엑스포 등이다.

<표 II-1> 박람회(엑스포)의 유형

유형 기준	유형 분류	사례
국제공인여부	국제공인박람회	·1993 대전박람회 ·2006 아이치박람회 ·2010 상해박람회 ·2012 여수박람회
	일반 박람회	·도자기엑스포(세계도자비엔날레로 명칭 변경)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연속성 여부	1회성 박람회	·1993 대전박람회 ·2006 아이치박람회 ·2010 상해박람회 ·2012 여수박람회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연속형 박람회	·도자기엑스포(세계도자비엔날레로 명칭 변경)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동굴엑스포

자료 : 이충기(2007.11.8.), “엑스포와 지역발전: 한국의 경험,” 인천발전연구원, 2009인천세계 도시엑스포 성공적 개최전략, 한·중·일 공동 심포지엄, p.5.

다. 박람회(엑스포)의 성공사례

근대적 의미의 엑스포는 1851년 영국에서 열린 수정궁(the Crystal Palace) 엑스포가 시초로 지금까지 모두 105차례가 열렸다. 국가별 개최 횟수는 미국 30회, 영국 14회, 프랑스 12회, 벨기에 7회, 이탈리아·스페인 각 5회, 일본 4회, 스웨덴 3회 등으로 모두 105회 가운데 80회(76%)가 선진국에서 개최됐다(<http://www.korea.kr>).

우리나라는 1893년 시카고 엑스포에 처음 참가했다. 관계자 5명과 국악사 10명을 파견, 8칸 기와집에 관복·도자기·모시·부채·갑옷 등을 전시했다. 이로부터 꼭 100년이 지난 1993년에 인정박람회(당시에는 전문박람회)에 해당하는 대전엑스포를 개최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박람회 개최를 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다. 일본은 박람회 때마다 새로운 일본의 모습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프랑스는 12차례 박람회를 유치해 관광대국으로 부상했다.

1970년에 열린 오사카 박람회는 고도 성장기이던 '젊은 일본'을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만국박람회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을 모았으며 방문객 숫자도 6,422만명을 기록했다.

엑스포의 효시인 1851년 런던 엑스포에 이어 1855년 처음으로 파리 엑스포를 개최한 프랑스는 총 12차례 엑스포를 유치했다. 엑스포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 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 도시 재정비 등 효과를 거뒀다. 특히 파리는 8차례 엑스포를 개최하며 관광 명소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표 11-2> 세계박람회 성공사례

박람회 개최지	개최 효과
프랑스 파리박람회	·1855년부터 1900년까지 5차례나 세계박람회를 개최한 파리는 관광, 예술, 패션, 문화의 중심지로 각인 ·1889년 세계박람회때 세워진 에펠탑은 이제 파리의 상징이자 엄청난 관광수입원으로 자리매김
일본 오사카박람회	·1970년 아시아 최초로 개최, 6천만 명이 관람해 지금까지도 최대 규모 ·2차 세계대전 패전국가의 명예를 벗고 일본이 국제사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 마련
일본 쓰쿠바, 아이치 박람회	·1985년 쓰쿠바, 2005년 아이치가 세계박람회를 연거푸 유치하면서 일본의 산업구조를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이뤄냄
캐나다 밴쿠버박람회	·1986년 개최된 밴쿠버박람회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캐나다 서부지역 발전을 앞당겨 태평양의 관문으로 자리잡는데 중요한 역할 ·박람회 개최이후 밴쿠버는 관광객이 연평균 8%씩 증가
스페인 세비아박람회	·1992년 개최된 세비아박람회 개최로 세비아 공항은 박람회 개최전에는 한 해 이용객이 90만명에 그쳤으나 박람회 이후 300만명 수준으로 급성장
포르투갈 리스본박람회	·1998년 박람회를 치른 포르투갈 리스본의 경우엔 박람회 부지 일대가 도살장, 쓰레기하치장 등 혐오시설이 들어있어서 기피지역이었지만 박람회 개최 후 가장 변화한 곳으로 탈바꿈

자료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2007.12.7.

2. 상해·여수 세계박람회 개요

가. 상해 세계박람회

개최 기간은 2010년 5월 1일 ~ 10월 31일로 184일이며, 대회 규모에 대해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엑스포 참가국과 조직 수가 200개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해시는 2010년 엑스포단지를 아시아 최대의 컨벤션 단지로 계획하여 조성하고 있다. 엑스포단지에는 컨벤션센터, 테마관, 예술공연센터, 중국관, 해외국가관, 기업관, 국제기구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엑스포단지 건립 투자규모는 약 30억 달러, 관련분야(산업구조 고도화, 교통인프라 확충, 도심재개발 등) 투자규모는 150억~300억 달러로 추정된다.

2005년 현재 상해시의 성급호텔은 359개(객실 9만개)지만, 2010년에는 4성급 이상의 객실수를 40만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상해시는 400여개의 호텔을 리모델링하고 300여개의 호텔을 신축할 계획이다.

현재 상해시의 연간 관광객은 약 8,000만명 규모인데 엑스포가 개최되는 2010년 상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1.3억~1.5억명(상해엑스포 관람객은 약 7,000만명, 이중 외국인인 약 35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해박람회를 계기로 관광객이 증가함은 물론 상해시의 국제 브랜드가 상승하고 국제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며, 개최장소는 여수시 신항 지구 97만㎡ - 전지구역 25만㎡이다. 개최기간은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까지 3개월간이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주제관, 해양테마관, 국가관, 국제기구관, 협력기업관, 상징탑, 아쿠아리움 등이다. 참가규모는 795만명이며, 이중 내국인 752만명, 외국인 43만명으로 추정되며, 80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비로 모두 10조 213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여수에는 서울과 KTX가 직접 연결되는 ‘엑스포역’이 들어서며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전라선 일부 구간의 복선전철화,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지방도록 확장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표 II-3> 올림픽, 월드컵, 박람회 비교

구 분	88서울올림픽	93년 대전엑스포	2002년 월드컵	여수 세계박람회(추정)
개최기간	16일	3개월	1개월	2012.5.12~8.12
관람객	290만명	1,400만명	350만명	약 795만명 (내국인 752만명, 외국인 43만명)
생산유발 효과	4조7,000억원	3조1,000억원	11조5,000억원	13조2,464억원
부가가치 효과	1조8,000억원	1조3,000억원	6조7,000억원	4조6,362억원
고용유발 효과	34만명	21만명	35만명	6만6,807명

자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홈페이지.

Ⅲ. 상해·여수 세계박람회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1. 세계박람회 기간 영향

가. 상해 세계박람회

첫째, 시나리오 1 : 중국인의 해외여행 자제. 자국에서 184일동안 개최되는 상해 박람회 관람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자제할 경우 우리나라 인바운드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시장을 표적시장으로 하고 있는 제주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 2 : 내국인의 중국여행 증가. 상해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하여 중국 방문 내국인이 증가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입국비자 면제 등을 시행할 경우 중국 방문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다. 2005년 3월 11일부터 그해 9월말까지 열린 일본 아이치 박람회 기간동안 한국인에 대해 90일까지 체류 가능한 입국비자를 면제했던 사례가 있다. 전 세계 관광객(약 350만명), 중국인 관광객(약 6,650만명)이 일시에 집중할 경우 예상되는 항공좌석 및 객실 확보 문제, 방문지 혼잡, 물가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 방문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제주관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시나리오 3 : 제3국 관광객이 중국 방문후 한국을 경유할 경우 또는 중국방문 후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연계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할 경우이다. 상해박람회를 관람한 제3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연계방문할 경우 외래객 입국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박람회 방문 관광객이 집중하는 중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대체 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다. 북경, 상해 등과 제주간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제주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제3국 관광객의 선호도와 관련 여행상품 개발이 관건이다. 반면 상해박람회 관람 등으로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본국으로 곧바로 귀국할 수 있으며, 중국과 연계 방문지로 일본을 선택할 경우 방한 외래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방한 외래객 감소는 제주관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시나리오 4 : 제3국 → 한국 → 중국. 상해박람회를 관람하기 전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중국 방문을 위한 단순 환승객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상해박람회를 대비한 항공노선 증편으로 우리나라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으로 직항하는 노선이 증가할 경우 외래객 입국이 감소할 수 있다. 상해박람회 관람 등을 위해 한국의 대체 목적지로 중국을 선택할 경우 방한 외래객의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방한 외래객 감소는 제주관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여수 세계박람회

첫째, 시나리오 1 : 내국인 관광객이 여수 → 전라도, 경상도 등 인근 관광지 방문 증

가. 여수 박람회 기간동안 국내 관광객의 박람회 방문 증가로 제주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수박람회 기간이 여름 휴가기간(8월 12일까지)까지 이어지므로, 휴가시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조사하는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숙박관광객의 1일 평균 국내여행 참가횟수는 2007년 기준 3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박람회 기간동안 약 752만명의 내국인 관광객들이 관광을 할 경우 제주관광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 2 : 내국인 관광객이 여수→ 제주 또는 제주 → 여수 방문. 여수 박람회를 관람하기 전에 제주를 방문하거나 여수박람회를 관람하여 제주를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행태는 제주도가 섬지역이고, 여행비용을 고려했을 때 관광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산~남해안~제주를 운항하는 크루즈선 '팬스타 허니호'같이 국내 연안 크루즈선 운항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시나리오 3 : 외국인 관광객이 여수→ 제주 또는 제주 → 여수 방문. 여수 박람회를 관람하기 전에 제주를 방문하거나 여수박람회를 관람하여 제주를 방문할 수 있으며, 제주와 직항노선이 개설되어 있는 주요 타겟인 중국, 대만, 일본 관광객이 해당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방문시 한 지역을 방문하기 보다는 여러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교통연계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내·외 여행사와 협력하여 패키지상품개발이 중요하며, 중국·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여수-제주, 일본-여수-제주 등 남해안지역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크루즈선 노선취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나리오 4 : 외국인 관광객이 여수 → 전라도, 경상도 등 인근 관광지 방문 증가. 여수박람회를 대비한 여수공항 항공노선 증편, 호남선 KTX 완공 등으로 여수박람회와 전라도, 경상도 등의 인근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제주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여수엑스포를 관람하고, 여수나 주변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전라도, 경상도 등과 연계된 여행코스를 선호할 것이므로 제주도에는 부정적이다.

2. POST 상해·여수 세계박람회 영향

가. 중국의 관광경쟁력 강화

2007 WTTC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경올림픽(2008), 상해엑스포(2011) 등 관광산업에 156조를 투자한다고 하며, 메가 이벤트 등을 계기로 2010년 6천만명, 2020년 1억명의 중국인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세계관광기구(WTO)는 전망하고 있다.

상해시는 상해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금융, 물류, 전시컨벤션 등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중심지를 넘어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올림픽 및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디지털TV 등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환경산업, 서비스업 등 분야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박람회기간동안 상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가 350만명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이를 위하여 호텔 신축 및 개축을 포함한 관광인프라 확충, 국가 브랜드 향상 등으로 관광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된다.

나. 남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와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남해안이 새로운 해양경제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남해안 연안 도시들은 해양관광산업 개발 등 다양한 해양 인프라 확충에 나선 상태이다. 향후 남해안 일대에 대규모 해양관광시장이 형성되는 등 신(新)해양경제권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모티브로 관광발전전략을 수립·시행해 나가야 하는 제주도는 남해안 지역과 연계된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제주관광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표 III-1> 남해안 지역 시·도 추진사업

시·도	추진 사업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산업 ·인천~목포~여수~남해~부산을 잇는 해안관광 벨트 구축 ·제주~완도간 해저터널 건설
경상남도	·요트산업 및 크루즈사업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항만물류 산업
부산광역시	·항만물류 ·해양산업 ·관광산업(남해안 크루즈)

자료 : 서울신문, 2007년 12월 5일자.

3. 상해·여수 세계박람회 영향 종합

가. 상해 세계박람회

2008년 개최된 북경 올림픽을 사례로 볼때, 상해 세계박람회가 제주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자제 할 경우, 제주관광에 있어서 제2의 외국인 관광시장이 라 할 수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국내 크루즈선사가 상해 세계박람회 기간동안 인천~상해~제주를 연계하는 크루즈관광노선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III-2> 상해박람회의 영향 종합

구 분	박람회 기간 영향	Post 박람회 영향
긍정적 시나리오	·제3국 관광객의 제주-중국 연계관광 증가	중국인 해외여행 증가
부정적 시나리오	중국인의 해외여행 자제 내국인의 중국여행 증가	중국 주요도시 관광경쟁력 강화

나. 여수 세계박람회

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내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주와 여수를 연계하는 여객선편은 없으며, 여수에서 전라남도 고흥군 녹동까지 버스(약 2시간 소요)를 타고 가서 녹동-제주(3시간 50분 소요)까지 여객선(남해고속카페리7호)편을 이용해야 한다. 항공편은 대한항공이 제주 ↔ 여수 주 2회(금요일, 일요일)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비용과 연계교통편, 국내관광객들의 여행패턴(제주도의 경우 단일 관광목적지로 선택) 등을 고려할 때, 제주↔여수와 연계한 여행상품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동·서·남해안지역~부산~제주 등을 연계하는 국내 연안 크루즈선 취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제주를 단일목적지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지역과 연계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따라서 여수와 제주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이 기획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사와의 협력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만, 현재의 제주와 여수를 연계하는 교통여건으로는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통여건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현재 제주에 입항하는 한·중·일을 연계하는 크루즈선과 전 세계를 일주하는 크루즈선의 입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해야한다.

세계박람회이후 여수는 국제해양관광레저의 중심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박람회와 관계없이 남해안지역은 동북아 중심적인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해양관광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섬휴양리조트로 남해안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지상, 해양, 항공 공간을 연계하는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표 III-3> 여수박람회의 영향 종합

구 분	박람회 기간 영향	Post 박람회 영향
긍정적 시나리오	·제3국 관광객, 국내 관광객의 제주-여수 연계관광 증가	·제주와 남해안 지역과 연계된 해양관광벨트 구축
부정적 시나리오	·국·내외 관광객이 여수 등 남해안 인근 지역 숙박 및 방문	·남해안 지역의 해양관광 경쟁력 강화

IV. 상해·여수 세계박람회와 제주관광의 연계전략

1. 세계박람회 관련 조직과의 협력 강화

여수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간에 전략적 제휴(MOU)를 2008년 7월 30일에 맺었으므로, 조직위원회와 연계된 공동 마케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외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연계 관광상품 홍보 및 관광코스로 포함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동 협력사업으로는 공동 이벤트 개최, 양 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공동 홍보방안 등을 모색한다.

상해박람회와 관련해서는 북경올림픽 사례와 같이 서울, 부산 등 타 지역과 함께 공동 관광홍보방안과 관광상품개발방안 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관광상품 개발전략

가. 여수박람회 기간동안 특별 이벤트 개최 등 수용태세 개선

여수박람회 기간동안 도내 해양레저스포츠 수용태세 개선, 해양 축제·이벤트 개최, 관광지 입장요금 할인, 쇼핑 할인행사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제주~상해, 여수 연계 관광상품 개발

상해·여수박람회 관광상품 기획단계에서부터 제주와 연계된 관광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

다목적지 여행상품은 장기간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확실한 상품이다.

단순 환승 외래객을 위한 당일 상품, 단기 체류 외래관광객을 위한 단기 상품(1박 2일, 2박 3일) 등을 중심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인천-KTX-크루즈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다.

다.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구축

경주·부산에서부터 목포, 제주를 연결하는 서남해안 일대의 문화유적과 섬, 자연생태를 탐방하는 복합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신라문화(경주), 가야문화(김해), 영상·엔터테인먼트(부산), 남도문화(해남·완도), 다도해(통영), 휴양·골프관광(제주)를 연계한다.

현재 추진중인 남해안관광벨트개발사업(1999-2009), 제주국제자유도시, 부산영상산업클러스터, 광주문화중심도시와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계할 경우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라. 중국 소재 기업 인센티브 여행 유치

최근 제주가 인센티브 여행의 목적지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외래 관광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제주도내에 소재한 삼성, 현대계열인 신라호텔, 해비치호텔을 활용하여 여수박람회 기간중 중국소재 기업의 인센티브 여행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마. 크루즈 상품개발

외국의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박람회 기간중 여수 등 남해안 지역과 제주를 연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제주항 크루즈 전용부두가 완공되는 2011년에는 크루즈 관광이 제주의 새로운 관광 패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제주도, 일본·중국을 잇는 해양크루즈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기가 돼야한다. 기 취항중인 한~중~일 연계 크루즈선을 박람회기간중 여수를 방문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남해안 지역의 시·도와 협력하여 제주를 연계하는 크루즈노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13일 제3차 남해안발전공동협의회에서 해양 크루즈 사업은 부산-마산-거제~여수-거문도~흑산도·홍도~완도~제주~부산 항로에 크루즈선을 띄우기로 합의하였다.

<표 IV-1> 연도별 국제크루즈선 입항 통계

(단위 : 명)

구분	부산		제주		인천		평택		울산, 동해·속초, 목포	
	입항	관광객	입항	관광객	입항	관광객	입항	관광객	입항	관광객
2001	19	11,783	28	12,805	1	484	-	-	-	-
2002	28	13,237	8	2,760	2	515	39	7,016	-	-
2003	18	6,396	4	1,445	2	1,279	55	14,321	-	-
2004	22	9,930	2	753	-	-	-	-	-	-
2005	29	24,582	6	3,205	3	432	-	-	5	1,451
2006	36	20,928	21	10,477	3	1,652			7	936

자료 :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2007.4),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p.6.

3. 관광홍보전략

가. 박람회 기간전 홍보강화

상해·여수박람회를 대비하여 국내·외 언론인, 관광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팸투어, 설명회에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 박람회 기간중 홍보 강화

상해·여수박람회는 국제박람회 사무국(BIE)이 인증한 공인박람회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상해박람회의 경우 한국관의 일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여수박람회의 경우 지자체관에 별도의 제주특별자치도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상해·여수 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상해·여수공항, 여수항, 박람회 개최장소 등에 제주관광 홍보관 설치, 제주관광 홍보부스 설치 등을 추진한다.

다. 제주의 섬문화 홍보

최근 박람회는 다양한 문화를 총체적으로 엮어서 여러 장르의 이벤트로 집약함으로써 세계인을 위한 종합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박람회 개최기간 중에 수많은 공연, 전시, 축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제주의 섬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제주도립예술단 공연 등을 박람회기간중 시행하여 제주의 문화를 홍보하고 제주의 이미지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

라. 제주의 브랜드 홍보

상해 세계 박람회시 제주지역의 택시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를 해외관광-휴양도시의 IT화의 모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RFID/USN를 이용한 주차관리시스템, 양

돈·넙치 등의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 관한 정보의 일원화 관리를 통한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생산이력제)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여수 세계 박람회의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으로 해양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제주지역의 해양관광, 해양문화, 해양산업 등과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두고 홍보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4. 교통개선전략

가. 제주-상해, 여수 연계 항공편 확대

현재 제주-여수간 항공노선은 대한항공이 금, 일요일 1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박람회 기간동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과 협력하여 항공편 증편을 추진한다.

북경, 상해 등을 중심으로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동방항공 등의 항공사와 협력하여 상해 박람회 기간동안 항공편 증편을 추진한다.

또 전세기 취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한다. 박람회 개최 기간에 북경, 상해 등 중국의 주요 도시, 여수, 인천으로의 전세기 취항을 하여 제3국의 관광객들과 내국인을 제주에 유치한다.

나. 제주-여수 연계 위그선 시범 운항

대전세계박람회에서는 태양열 자동차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으로 선보였으며, 다른 박람회에서는 자기부상열차 등 첨단기술을 선전하는 차원에서 신기술을 선보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시속 300km, 400인승 대형위그선 상용화 개발을 목표로 연구개발 수행 중이므로, 여수박람회시 위그선을 시범운항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는 국내·외 주요 지역과 연계하여 위그선¹⁾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지이므로, 여수박람회 기간중 여수와 제주를 연계하는 위그선 시범운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날개가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양력이 증가하고 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인 지면(해면)효과(Wing-In-Ground Effect)를 이용한 신개념 해상 운송수단을 의미함.

5. 해양산업 육성전략 마련

가. 크루즈 산업 육성

한·중·일 동북아 지역의 교류 협력 증진과 역내 관광 시장 규모 증가, 한국 관광 인지도 상승 및 관광자원의 다양화는 크루즈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에 새로운 기회로 대두된다.

외국 크루즈선의 입항은 부산·제주를 중심으로 연간 2~3만명, 40~70회 정도이다.

크루즈선 기항 여건 및 수용태세 개선, 해외 홍보 및 판촉활동을 통한 크루즈 기항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만족도 및 재방문율을 제고해야 한다.

제주항 크루즈 전용부두가 완공되는 2011년에는 크루즈 관광이 제주의 새로운 관광 패턴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관광과 항만여건을 모두 감안하여 크루즈를 유치할 종합 TF팀(관광정책과, 항만개발과,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구성이나 부산과 같이 전 유관기관과 업계관계자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또 세계자연유산, 제주전통굿공연, 재래시장 투어 등 자연과 제주문화컨텐츠와 연계한 고부가가치형 크루즈 전용 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표 IV-2> 크루즈산업 육성방안

구 분	추진 내용
크루즈선 기항 여건 및 수용태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루즈선 기항 전용부두 확충 : 현재 제주항에 1개 선석(8만톤급)이 개발 중 ·고부가 가치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 세계자연유산, 해녀공연 등 제주전통 문화 컨텐츠와 연계한 고부가가치형 크루즈 전용 관광상품 개발 ·선상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취항예정 선사를 대상으로 제주관광 정보 제공 및 이벤트 지원 관련 협의,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선상홍보 매뉴얼 제작 ·국제 크루즈선의 국내 항만 기항 확대를 유도하고자, 항만시설사용료(선박 입출항료 및 접안료, 정박료) 감면혜택 부여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통과여객 (TWOV: Transit Without Visa) 인정 및 선상수속절차의 인정

구 분	추진 내용
해외 홍보 및 판촉활동을 통한 크루즈 기항 확대	·크루즈선 유치 계획서 작성 및 중앙정부 제출 ·크루즈 주요 컨벤션 참가를 통한 해외홍보 네트워크 구축 : Seatrade Cruise Shipping Convention, Seatrade Europe 등 참가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크루즈 본사 대상 기항확대를 위한 홍보 판촉 강화 ·해운선사 및 총판 대리점의 외국 크루즈 유치 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유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입항횟수, 승객인원 등 외국 크루즈 유치 실적 대비 인센티브 제공 방법 및 규모에 대한 사전 기준 마련 ·크루즈 전문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구축한 주요 선사 의사결정자 및 관계 여행사 등에 제주관광 관련 홍보물 및 기념품 정기적 발송

자료 :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2007.4),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2007.4, pp.11-25
 일부내용 수정 작성

나. 해양산업 육성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주공간에 이어 해양을 인간의 또 다른 활동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심해저에 놓여있는 많은 자원들은 향후 자원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2006년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한 '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에서 "21세기는 해양 시대"라며 "모든 나라의 운명은 해양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2004년 수립된 '오션블루프린트'에서 해양자원 활용 증대와 이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중국은 '국가해양경제발전 요강'에서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서 해양산업 비중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이다. 일본은 지난 7월 20일 종합해양정책본부를 발족시켰다.

여수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남해안 인근 지역들 또한 특색 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통영시는 '진주항공산업' 발전 구상을 내세워 2010년까지 세계최고수준의 기술을 완성시켜 엑스포의 효과를 최대한 흡수한다는 계획을 수립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심해자원개발 기술(심해저 망간단괴, 고코발트 망간단괴 등 심해저광물의 채광·제련기술개발), 해양생물자원개발 기술(바다 목장화 기술, 신물질 및 유용물질 개발 등), 해양공간 건설 및 이용기술(대형 해양구조물 개발, 해저공간 건설 및 이용기술 등을 활용한 저장기지, 해중공원, 해저터널, 해저목장 등의 개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해양자원 활용형 산업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야한다.

V. 맺으며

중국은 2008년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박람회를 계기로 국가 관광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를 계기로 남해안 연안 도시들은 해양관광산업 개발 등 다양한 해양 인프라 확충에 나선 상태이다.

메가 이벤트 개최는 주변 국가 내지 지역의 관광객 유치 및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시의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변 정세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전략을 마련한다면 제주관광의 발전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상해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정부, 한국관광공사와 적극 협력하여 박람회기간중 제주관광홍보와 제주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이나 상해-제주를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여수박람회도 기획단계에서부터 제주와 여수간 교통편, 관광상품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요한 것은 상해박람회, 여수박람회 등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제주지역 관광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대전박람회, 여수박람회, 국외 개최 박람회의 유치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박람회국제사무국(BIE)에서 인증하는 등록박람회 또는 인정박람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우미형(2007), “중국 비자제도 개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정책, 2007여름(통권 제28호).

이충기(2007), “엑스포와 지역발전: 한국의 경험,” 인천발전연구원,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성공적 개최전략, 한·중·일 공동 심포지엄, pp.3~5.

문화관광부·해양수산부(2007),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pp.6~25.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2007.12.7.

서울신문, 2007년 12월 5일자.

<http://www.expo2012.or.kr>

http://www.korea.kr*9